

# 상한론 의안 발표

20235507 박진호

# 환자 정보

30대 남성. 키 185cm 몸무게 88kg. 體強.

대학교 MT에 참여해 추운 바닥에서 잠을 자고 난 뒤  
열이 38도까지 오르고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전신에 심한 몸살이 났다.

열이 너무 심해 앞이 제대로 안 보이고 두통이 심했다.

즉시 행사 장소에 준비되어 있던 해열제(아세트아미노펜 1g)을 복용했다.

집에 도착해서 잠을 자고 일어나니(4시간) 땀이 약간 나 있었다.

다시 해열제(아세트아미노펜 500mg)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니

열이 내려가고 몸살이 없어졌다.

인후통이 극심해져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침을 삼킬 때도 아프게 되었다.

# 望診

키와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다.

얼굴이 길고 코도 긴 편이며 얼굴색은 하얗다.

피부가 고밀하고 단단하며 목소리가 크다.

살과 근육이 모두 실하지만 일부 약한 부분도 있다.  
몸놀림이 날래지 못하다.



# 問診

## 한열

더위를 많이 탄다.  
여름철 휴대용 선풍기는 필수.  
찬물을 좋아해 많이 마신다.  
평상 시 얼굴에 핑크색으로 홍조.

## 음수

찬물을 좋아한다.  
하루에 1리터 이상,  
1.5리터 정도 마신다.  
물도 많이 마시지만 음료도 많이  
마신다.

# 問診

## 음식 소화

평상 시에 음식 소화가  
아주 잘 된다.

살면서 체한 적이 거의  
없다.

야식도 많이 먹는다.

## 소변

물을 많이 마시는 만큼  
화장실도 자주 간다.

하루에 6~8회 정도

소변은 옅은 노란색  
잔뇨감은 없다.

## 대변

하루에 1~2회

평상 시 특별한 이상은  
없다.

가끔 컨디션이 좋지 않  
을 때 大便溏하거나  
熱泄이 있다.

# 問診

## 땀

평상 시에 땀이 많이 나는 편이다.

조금이라도 더우면 땀이 줄줄 나서 상의를 다 적실 정도이다.

## 수면

최근 잠을 줄여가며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낙으로 살고 있다.

하루에 4시간~6시간 정도 수면.

낮잠도 종종 잔다.

## 컨디션

잠을 못 자서 그런지 머리가 맑지 못한 경우가 많다.

# 問診

## 다빈도 증상

비염이 있지만 심한 편은 아니다.

말을 많이 해서 목이 쉬는 경우가 많다.

가끔 몸살이 난다.

## 성격

뭐든 괜찮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게 있다면 강하게 밀어붙인다.

조금 느리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.

## 설진

설체가 넓지 않고 뾰족한 모양이다.

열이 심할 때 설첨부가 빨간 상태였다.

# 切診

## 복진

복부는 전반적으로 윤기가 있고 크게 팽창되어 있다.

복벽은 탄탄하고 복직근이 경직되어 있다.

## 맥진

체구에 비해서 맥이 洪하지 않다.  
緊하면서 弦한 맥이 느껴진다.

浮沈중에서는 浮脈.



# 종합

키가 크고 덩치도 크다.

소화가 잘 된다.

복부가 탄탄하다.

전체적으로 근육이 발달했다.

목소리에 힘이 있고 성량이 좋다.

=> 체력이 좋다. 體強

땀이 많이 난다.

차가운 물을 많이 마신다.

선풍기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.

조금만 더워도 얼굴에 홍조가 생긴다.

=> 熱 위주의 사람이다.

# 변증 - 오장변증

추운 바닥에서 자고 난 다음  
惡寒 發熱 身體疼痛이 생겼다.

熱이 왕성한 사람이기에  
邪氣가 化熱했을 가능성이 높다.

해열제를 먹고 잠을 자니  
열이 내려가고 咽喉痛만 남았다.



風熱犯肺證

# 변증 - 육경변증

기표가 고밀한 사람에게 寒邪가 침습  
惡寒 發熱 身體疼痛이 있으며 煩躁증상  
表寒하고 裏熱이 있었던 상황으로 본다.

현재는 표증 대부분이 사라지고 인후통  
만 남았으므로 초기 단계에 대한 변증



表寒裏熱證  
(大青龍湯證)

太陽表實證  
(麻黃湯證)

# 변증 - 종합

체실한 者가 寒邪에 感.  
正氣가 盛해 邪氣에  
저항하는 힘이 극렬해  
發熱, 身疼痛, 煩躁  
증상이 나타났다.

해열제를 먹고 휴식  
을 취해 열 증상,  
신체통은 물러갔지만  
인후통이 극심하다.

風熱犯肺證  
風熱犯衛證

풍한사가 化熱해 風熱象이 두드러졌고  
증상이 완화되면서 환자의 약점인 인후부에 국소화되었다.

# 처방 선정

風熱犯肺證

銀翹散

太陽表實證

麻黃湯

風熱犯衛證

銀翹散

# 처방선정

風熱犯肺證  
風熱犯衛證



銀翹散

桑菊飲

荊芥連翹湯

麻黃湯  
大青龍湯

# 은교산

辛凉平劑銀翹散方

連翹（一兩）銀花（一兩）苦桔梗（六錢）薄荷（六錢）竹葉（四錢）  
生甘草（五錢）芥穗（四錢）淡豆豉（五錢）牛蒡子（六錢）

효능：辛凉透表 宣肺泄熱 清熱奚毒

連翹와 金銀花는 발산하며 清熱解毒한다.

荊芥와 豆豉는 發汗하는 효과가 약간 있다.

桔梗, 甘草, 牛蒡子로 폐기를 선통하고 咽喉에 맺힌 사기를 푼다.

# 복약경과

-1일차 : 인후통(VAS 8)이 심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.

0일차 : 인후통(VAS 8)으로 인해 침을 삼키기 힘들다.

1일차 : 인후통이 아직 있지만 가장 아팠을 때보다 통증이 30% 정도 감소.

초기 인후통 : VAS 8, 복용 후에는 VAS 5~6 정도

2일차 : 인후의 붓기와 통증이 감소해서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.

3일차 : 인후의 붓기가 감소해서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면 통증이 거의 없어졌다.

수면 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서 인후가 아프지는 않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.

4일차 : 인후부 붓기와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다.

목소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소리가 갈라지는 현상이 남아있다.

5일차 : 인후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아 복약 중단.



# 고찰 및 소감

질병 초기에 대청룡탕/마황탕을 사용했다면 어땠을까?  
상국음은 어땠을까?

비대면으로 환자의 증상을 들으며 변증을 하다보니 비대면 진료의 이루어진다면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다.

환자가 해열제를 사용하는 등 서양의학적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환자 상태가 바뀌어도 한의학적으로 이를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유익했다.

# 고찰 및 소감

환자가 너무 체력도 좋고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한론 소음병 인통에 사용하는 처방 (특히 감길탕)을 사용했다면 어떤 효과가 났을지 궁금하다.

너무 상한론과 온병학 처방에 집중했던 것 같다.

패독산 계열 약물 (인삼패독산)을 고려했다면 달라졌을 것 같다.

환자가 아플 때는 평소와 다른 생활 습관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.

평소 물을 많이 마시다가 목이 아파서 못

또한 환자의 생활 습관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.

# 고찰 및 소감

환자가 앓을 때는 평소와 다른 생활 습관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.

➔ 평소 물을 많이 마시다가 목이 아파서 못 마시면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.

목소리가 안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

➔ 열에 의해서 진액이 손상 + 인후부 손상 + 평소보다 물을 못 마셔서 진액 부족, 수면 부족으로 음액 보충 불가. 여러 요인이 합쳐졌을 것.

환자의 생활 습관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.

